



출연하는 드라마에서는 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실제로는 마음에 둔 여성에게 속 시원하게 고백한 번 해본 적 없다는 김선호. 하지만 이제부터 "사랑에 과감하게 나서고 싶다"고 했다. 사진제공 | 쇼트엔터테인먼트

“정작 사랑에 답답한 나, 낭군님처럼 질러볼까요?”

‘백일의 낭군님’으로 여심공략 성공

김선호

연극만 하다가 ‘김과장’으로 TV 데뷔
낮선 환경에 처음엔 도망가려고 했다
주변 응원 덕분에 카메라에 익숙해져
시청자가 좋아해도 내 연기 만족 못해
연극에서의 많은 경험, 내겐 큰 자산



연기자 김선호(32)가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1년 6개월 전이다. 지난해 3월 인기리에 종영한 KBS 2TV 드라마 ‘김과장’에서 어리바리하지만 성실한 경리부 사원역을 맡아 시청자의 눈도장을 받은 그는 그 같은 영광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드라마와 자신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렇듯 인생은 예측불가.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김선호는 최근 화제 속에 막 내린 tvN ‘백일의 낭군님’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재수가 너무 좋았다. ‘김과장’ 이후 ‘최강배달꾼’으로 바로 주인공을 맡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투깝스’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김과장’과 ‘투깝스’ 오디션 때는 다른 배역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리고 ‘백일의 낭군님’은 처음으로 오디션을 보지 않고 출연이 결정됐다. 쉬지 않고 매번 다른 캐릭터로 연기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김선호는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주위에서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줬기에 도망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2012년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를 졸업한 그는 서울 대학로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김과장’을 통해 처음으로 TV 연기를 경험했다. 실시간으로 관객과 소통하며 연기하는 느낌과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차이가 컸다.

“연기 자체는 같은데 방식이 다르더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눈치를 많이 보게 되더라. 현장 분위기도 낯설어 ‘김과장’ 끝나고 드라마를 못할 것 같았는데 주변에서 ‘도망가는 것 밖에 더 되는 것 아니냐’는 말에 힘을 얻었다. 지금은 제작진의 의도를 한 번에 이해할 만큼 익숙해졌다.”

그러나 익숙함은 그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줬다. 카메라 앞에 서는 낯설을 떨쳐냈더니 연기에 대한 즐거움을 잠시 놓치는 순간이 찾아왔다. 100% 사전 제작방식의 ‘백일의 낭군님’을 촬영하며 연기를 즐기지 못하고, 일처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치 회사원처럼 기계적으로 “촬영장을 출퇴근”하는 느낌을 받았다.

“좋아서 하는 일인데 어느 순간 일로 하고 있더라. 더위 핑계로 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다. 사전 제작으로 편집 영상을 못 보는 상황이라서 제 연기에 자신이 서지 않았다. 그때 그 연기가 잊혀지지 않아 방송을 앞두고 당시 촬영 장소를 여행하며 좋은 기억으로 새겼다. 하하! 고마운 줄 몰랐던 저를 자책하며 새로 다짐하면서 털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좋지 않은 기억을 무리하게 좋게 만들려는 수고를 조금씩 털어내려고 하고 있다. 김선호는 “반성하고 실력을 쌓는 것도 분명 좋지만 자신감이 없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지 않나. 제가 바라보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주변의 반응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믿는 노력

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청자가 만족해도 “제 기준에서 끔찍하게 못하는 건 고개 숙이고 봤다”며 머쓱 웃는 김선호는 “연기는 요령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있는 게 좋은 것도 아닌 거 같다”면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 해법을 김선호는 연극무대에서 찾고 있다. ‘연애의 목적’ ‘육담방 고양이’ ‘트루리스트’ ‘클로저’ ‘뉴 보잉보잉’ 등을 포함해 지난해 무대에 오른 ‘거미여인의 키스’까지 그에게 공연은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드라마 연기를 하는 데 있어 무궁무진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연극은 오랜 기간 연습을 통해 완벽한 상태로 무대에 오른다. 드라마는 상황에 따라 빠른 시간에 대사를 외워야 하기도 한다. 순간적으로 대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극에서 경험한 다양한 캐릭터와 설정 등이 많은 도움이 된다. 연극에서의 많은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김선호는 연기도, 인생도 언제나 돌다리 건너듯 조심스럽게 마주한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는다. 혹여 실패했을 때 상처의 크기를 최소화할 줄이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인 셈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짝사랑을 하면서 단 한번도 고백을 해본 적이 없다는 그가 사랑 앞에서는 과감하게 나서고 싶다고 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좋아하는 여성과 ‘썸’을 타다가도 연락이 잘 닿지 않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제는 (당당하게 고백하려고) 노력하려 한다. 하하!”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HOT 5

걸그룹 출신 다나-이호재 감독 결별

천상지희 출신 다나와 이호재 감독이 결별했다. 다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다나와 이호재 감독이 결별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연애는 2016년 공개됐다. 다나는 2016년 5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열애중이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얼마 후 그 상대가 이호재 감독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2013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 결별 이유와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아이즈원 데뷔앨범, 오리콘 주간 1위

그룹 아이즈원이 데뷔앨범으로 오리콘 온·오프라인 주간앨범 차트 1위를 석권했다. 6일 일본 음악차트 오리콘은 “아이즈원의 데뷔 앨범 ‘컬러라이즈’가 11월 첫째 주(10월29일~11월4일) 주간 앨범 랭킹과 주간 디지털 앨범 랭킹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정식 데뷔도 하지 않은 신인가수가 수입판으로 온·오프라인 앨범 차트에서 동시 1위에 오른 건 이례적이다. 아울러 데뷔 첫 주 판매량 8만822장(10월29일~11월4일)을 기록,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

‘인도네시아 억류’ 이종석 귀국



이종석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됐던 이종석이 현지 기획사와 프로모터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6일 소속사 에이맨 프로젝트는 “이종석이 기획사와 현지 프로모터인 예스24의 (잘못된)업무처리 때문에 귀국이 지연됐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석은 3일 인도네시아에서 팬미팅을 벌인 후 이날날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공항에서 발이 묶이고 말았다. 이종석 측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기획사와 현지 프로모터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제대한 JYJ 김준수 30일부터 콘서트

5일 제대한 JYJ 김준수가 콘서트를 벌인다. 6일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준수는 30일부터 12월2일까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018 웨이 백시아 콘서트’를 연다. 씨제스는 “김준수는 의경 만기 복귀 동안 변치 않은 마음으로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솔로 활동을 총망라한 세트 리스트로 완성도 높은 콘서트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준수는 1년 9개월간의 의무 경찰 복무를 마치고 5일 전역했다.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팬사인회를 연다.

래퍼 도끼, LA서 도난 사고

래퍼 도끼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도난 사고를 당했다. 도끼는 6일 SNS에 “어제 저녁 LA 한인타운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범들이 차 유리를 깨고 제 백팩이랑 제 미니저 백팩을 훔쳐갔다. 도난당한 백팩에는 목걸이, 시계, 카메라, 한국 휴대전화 두 개, 제 여권이 들어있었다”고 썼다. 도끼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LA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경찰들도 보안요원들도 가방을 차에 놔둔 저희 잘못이라고 한다. 거의 잡을 가능성도 없다고 한다”고 답답해했다.